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9 호 현대불교
2023년 3월 29일(음 윤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못났든 잘났든 참자기로부터 은산철벽은 뚫릴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소녀가 길을 걸은 얘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녀가 걸은 길은 너무도 진리였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한마음으로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그 소녀는 항시 응시했으니까요.

옛날에 어느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소녀는 위로 윗분들, 아래로 동생들, 또 부모가 다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산골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붕을 만들고 풀을 깎아서 이어야 했고 또 그 안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등상을 매고 그 위에다 풀을 깎아 말려서 거기 놔야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길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불법을 모두 우습게 생각하고 기복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자르는 데 가서 잘라 놓은 나무의 가지를 항상 낫으로 다가 매끈하게 잘라 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가지는 한데 합쳐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솔방울은 솔방울대로 또 따서 한데 합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무가 하는 소리입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자르게 된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서 잘랐잖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자르는 거나 진배없이,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어쩔 수 없잖아. 너도 바로 나고 나도 너니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너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가 또 나로 인해서 편리하게 잘 수 있다면 좋아." 그러고 대답이 왔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낫으로 자르면서도 "어린 동생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잖아? 이걸 가지런히 다 눕혀서 등상을 매야만이, 또 풀도 이렇게 두껍게 놔야만이 우리 동생을 뉠 수가 있지." 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낫으로 곱다랗게 요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잘라 내." 하거든요. 옹이가 진다면 풀잎을 깔아도 아픔이 오니까 그것을 매끈하게 자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라는 얘깁니다.

이게 잔소리 같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껍데길 벗기면 바로 나의 살 껍데기를 벗기는 거와 같아서 참 마음이 안됐습니다. 결국은 "야, 껍데길 벗기면 아프잖아." 하고서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나도 눈물을 흘리잖아.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잖아." 하는데 "눈물 흘리는 것 좀 봐." 하는 순간, 그 소녀가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진물이 묻어나고 흘렀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날 아버지가 가지런히 해 놓으신 거를 갖다가 연결해서 등상을 매고 그 풀 깎아 놨던 거를 거기다 두둑하게 깔았습니다. 깔고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날은 좀 추웠습니다. 등상 맨 그 바닥은 땅바닥이었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선 거기다가 솔방울 삭정이를 넣고선 불을 질러 놓고 거기다 젖은 나무를 놓게 되니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니까 그 연기 나는 것을 소녀의 아버지가 바깥으로 굴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소녀가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붕 사이사이로다가 별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불 놓은 그 울 안에는 따뜻한 기가 항상 이렇게 자기의 몸을 스쳐 갔습니다.

그랬는데 소녀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아래서는 나를 따뜻하게 해 주는 저 불빛, 따뜻하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춰 주는구나.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 저 지붕에서는 별빛이 또 저렇게 밝게 비춰 주는구나. 누가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소녀는 너무 아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 친구, 한 식구기 때문에 저렇게 따뜻하게 해 주고 또 비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찌 모두 각자 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최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렇게 하면서 수없는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모두를 벗들로 생각을 하고 나무 한 잎 한 잎도 벗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녀가 하던 그것을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최초에 지수화풍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듯이, 모태로서의 우리는 전부 친근감을 갖고 있고 한 식구, 한마음, 한 생명, 모두 이렇게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떼 놓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산다' 고 하고 각자 살지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복입니다. 기복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 놨는진 모르지마는 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간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으며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을까. 그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불교라는 것도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는데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건 천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그 위력이 얼마나도 광대무변하고 참 묘한지,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 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도 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체험이 갈 리가 없죠.

우리가 불이 가설이 돼서 다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코드를 꽂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코드를 꽂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터를 돌리려면 모터의 코드를 꽂아야 하고 또는 내가 컴컴하다면 불을 켤 수 있게 코드를 꽂아야 하고 또는 어떠한 전기 기구를 쓰려면 그 코드를 꽂아야만 합니다. 내가 수천수만 가지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관을 통해서, 어저께 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습도력이나 온도력이나 자동력이라든가 또 전자력이라든가 통솔력이라든가, 이 통솔력이라는 건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지혜로움이라든가, 통신력이라든가 이런 자동력, 이 자체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항상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물질만 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하고서 요렇게만 돼 있지마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앞으로 성장이 된다면 5차원, 6차원, 7차원의 그 차원이 높아져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정말이지 개발된 우리 인간의 삶에 생동력 있는 보람을 느낄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내가 나갈 줄 알고 내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할 줄 알아야만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한생각 낼 줄 아는 것이 말하자면 법이 되는 것이지 우주 천하가, 전체가 한데 합쳐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한생각을 낸다고 해서 어찌 우주가 달라지고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어린 어떤 소녀도 그렇게 해 나갔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또 본보기로 생각하면서 나 자체가 그대로 그 소녀가 한 일을 본받아서 항상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나 우리가 7차원의 차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 결론은 우리의 능력이 바로 이 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천세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천세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며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 은하계의 능력도 바로 우리 한 점의 마음의 능력과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멀고 가까움도 둘이 아니요, 능력이 크고 작음도 둘이 아니요, 가고 옴이 둘이 아니요, 또는 물질 자체가 둘이 아니요, 바로 마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